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역사적인 '순례자의 길'을 소도시와 협력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

문화·관광 -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존중하는 양조장, 맥미나민스

산업·경제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도시기업구역 확대·지정

산업·경제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방정부의 전자지갑 서비스

환경·안전 - 포스트 코로나19에 맞추어 '동물방역조례' 개정하여 시행

도시계획·주택 - 세대 간 공동거주 혜택 정책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미국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황현	정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지은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일본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독일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정연주	

역사적인 ‘순례자의 길’을 소도시와 협력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 문화·관광

영국 캔터베리에서 출발하여 프랑스와 스위스를 거친 뒤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1,800 km의 순례길 ‘비아 프란치제나’에서 토스카나주 구간은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음. 토스카나주는 1200년 역사를 가지고 주 내의 39개 도시를 관통하는 400km의 순례자의 길 ‘비아 프란치제나’를 이탈리아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고자 소도시와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함

배경 및 목적

- 비아 프란치제나(Via Francigena): 프란치제나 길
 - 영국 남부 캔터베리에서 시작하여 프랑스와 스위스를 거친 후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1800km의 순례자의 길
 - 이탈리아의 7개 주에 44개의 순례자의 길 코스가 형성되어 있음
 - 발레 다 오스타(Valle d'Aosta), 피에몬테(Piemonte), 롬바르디아(Lombardia), 리구리아(Liguria), 에밀리아 로마냐(Emilia-Romagna), 토스카나(Toscana), 라치오(Lazio)
- 토스카나 소도시들 사이에서 역사적 가치를 가진 순례자의 길을 문화적 관광지로 알리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 시작됨
 - 역사적으로 유럽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 길을 걸어 로마 교황청에 도착했다고 하여 순례자의 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됨. 하지만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산티아고 순례길(Camino de Santiago)’과 비교하여 인지도와 이용도 면에서 매우 부족함
 - 전 세계 도보 여행자와 자전거 여행자 들뿐 아니라 피렌체와 시에나 등 토스카나주의 대도시를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 코스를 만들려는 노력
 - 순례자의 길이 토스카나의 유명하지 않은 작은 마을들과 이어져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 토스카나주와 각각의 시는 관광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 중



[그림 1] 프란치제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

(출처: <https://travelbabbo.com/via-francigena/>)

주요 내용

- 비아 프란치제나의 특징을 살린 숙박시설 증설
 - 저렴한 숙박시설 제공
 - 아그리투리스모(agriturismo, 농촌체험관광)와 가정집을 개조한 저가의 시설 제공
 - 호텔 네트워크 강화
 - 저렴한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14개의 호텔이 완공
 - 호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른 시로 이동하더라도 코스와 호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토스카나주에서 호텔 증축을 위해 7년 동안 펀드 제공
- 길 보수와 표지판 통일
 - 루트를 세 개로 통일
 - 다양한 길을 ‘걷는 길, 자전거 길, 승마 길’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표지판과 안내판을 모두 통일
 - 길 보수와 관리를 위해 한 해에 약 22만 유로 투자

- 교통 및 이동편 확대
 - 순례자의 길로 이동하는 대중교통 확대
 - 카풀 서비스 등 공유 경제에 기반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
 - 공기 오염과 소음 없는 이동 수단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참여 확대
-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참여
 - 주변의 버려진 땅들을 벤처기업의 사업 기회로 참여 유도
 - 순례자의 길에 맞는 작은 관광지 개발, 여행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행 서비스 개발
-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 교육을 위한 여행 콘셉트로 각 시의 학교, 단체 등이 프란치제나 길을 경험하도록 홍보
 - 구글과 협약하여 프란치제나 길의 모든 코스의 실제 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웹 지도 제공
- 토스카나주 15개 코스에 무료 와이파이 존 설치
 - 지역의 70%가 현재 완성되었으며 숙박시설, 교통편, 근처 관광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그림 2] 프란치제나 길에 위치한 토스카나의 소도시를 방문하는 순례자들

(출처: <https://travelbabbo.com/via-francigena/>)



[그림 3] 아그리투리스모(Farmhouse)에서 묵고 식사하는 순례자들

(출처: <https://travelbabbo.com/via-francigena/>)

<http://www.toscana-notizie.it/-/via-francigena-patrimonio-unesco-arrivato-il-si-per-l-iscrizione-nella-lista-propositiva-?>

<http://www.toscana-notizie.it/-/la-francigena-toscana-numeri-percorsi-progetti>

<http://www.toscana-notizie.it/-/francigena-toscana-verso-la-creazione-del-primo-prodotto-turistico-omogeneo>

<http://www.regione.toscana.it/-/via-francigena-rivivere-un-antico-cammino>

<https://www.viefrancigene.org/en/resource/news/al-lanalisi-preliminare-la-candidatura-unesco/>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존중하는 양조장, 맥미나민스

미국 포틀랜드시 / 문화·관광

1980년대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양조장을 시작한 맥미나민스는 국가 유적지에 등록된 지역의 역사·문화적 중요 장소를 보존 및 개발하여 양조장, 극장, 펍, 호텔로 활용하고 있어, 도시재생 관점에서 지역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존중하며 개발된 좋은 예시로 꼽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역 농장이나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현재 미국 북서부 지역 63곳에 지점을 둔 양조장 및 호텔 체인으로 성장

배경과 개요

-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 지역 브랜드
 - 오리건주는 주 전역 도시마다 유명한 양조장이 있음. 그중 1983년 포틀랜드에서 시작한 맥미나민스(McMenamins)는 양조장, 극장, 펍, 호텔 등을 가진 지역 브랜드로 성장
 -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 걸쳐 있는 63개 지점 중 국가 유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NRHP)로 등록된 20곳을 양조장이나 호텔로 개발

주요 내용

- 역사·예술적 의미 가진 공간을 보존·개발
 -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문화로 잇는 역할 자처. 미국 국가 유적지로 등록된 장소나 역사·문화·예술적 보존 가치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며 양조장, 극장 및 호텔로 개발
 - 대표적 예시로 지역 내 폐교(Anderson School), 오래된 종교시설(Elks Temple, Little Chapel of the Chimes)이나 주정부 건물(Boon's Treasury), 유서 깊은 빈민 농장 (Edgefield) 활용 등
 - 역사적 초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공간 예술 작업
 - 고용된 예술가들과 지역 역사 연구를 우선하고 난 뒤 맥미나민스 특유의 디자인을 적용해 펍이나 호텔 객실의 내부 공간을 디자인
 - 맥미나민스 여권
 - 맥미나민스의 여권을 만들어 등록하면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지점별 기념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여러 지점 방문을 유도

○ 식품 원자재 지역 내 수급

- 주요 기조인 지속가능성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사회 내 소규모 유기농 농장과 소상공인들에게서 식품 원자재 대부분을 수급



[그림 1] 맥미나민스 옛지 필드 지점으로 복원된 건물들 중 펍 내부 (출처: 필자 직접 촬영)

시사점

○ 오랜 문화유산 지키며 상생하는 지역 브랜드

- 도시재생과 지역 관광상품 개발의 좋은 예시
 - 기존 건축물과 내부 공간 디자인에 지역 역사를 녹인 예술 작품 활용
- 지역 대표 상품인 맥주를 기반으로 주변 농장,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브랜드로 성장

<https://www.mcmenamins.com/>

<https://scarc.library.oregonstate.edu/findingaids/index.php?p=collections/findingaid&id=177&q=McMenamins+Brewery+Collection>

<https://oregonbusiness.com/19086-mcmenamins-grows-the-family/>

<https://www.restaurantbusinessonline.com/financing/mcmenamins-looks-20m-equity-infusion>

<https://www.nps.gov/subjects/nationalregister/index.htm>

김 규 리 통신원, kyuri@pdx.edu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도시기업구역 확대·지정

미국 포틀랜드시 / 산업·경제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높아진 실업률,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일부 지역에 지정되어 있던 도시기업구역(Enterprise Zone)을 다운타운과 북서부 일부 지역까지 확대하는 정책 실시. 또한 동부지역의 지정 구역에서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혜택 대상으로 추가하여 경제 활성화 효과 증대를 도모

배경

- 다운타운 등 지역경제의 핵심 지역을 포함하여 전폭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 필요성 대두
 - 포틀랜드시의 경제발전기구(Prosper Portland)는 현재 포틀랜드시의 경제적 침체 위기가 심각하다고 발표
 - 40년 만에 첫 인구 감소, 2019년 이후 법인세 32% 증가, 오피스 공실률 증가 및 다운타운 일대 유동인구 감소 등(2023. 8. 31., 시의회 공개회의의 아젠다 733-735)
 - 포틀랜드의 동부지역 일부에 지정되어 있던 도시기업구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를 제안
 - 기존 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

주요 내용

- 다운타운과 북서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업구역 확대 지정 승인
 - 2023년 8월 31일부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을 별도 관리
 - 도시기업구역은 오리건주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으로, 주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하는 범위와 내용을 규정
 - 소매업, 건설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대상 기업은 5년간 신규 실물자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토지와 기존 자산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 해당 기간 내 부동산이나 장비 등에 신규 투자 유치와 신규 고용 창출 의무
 - 이번 신규 도시기업구역 지정을 통해 2015-2020 도시전략계획과 2023 포틀랜드 발전전략 등과 연계하여 도심 활성화를 도모
 - 이와 함께 주요 대규모 제조업체 다임러 트럭(Daimler Trucks)에게 10년간 고용

창출 의무조항 면제를 별도로 적용하여 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유도(GDP 대비 약 1억 800만 달러의 부가가치와 1,1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세입 예상)

- 기존 포틀랜드 동부지역의 도시기업구역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을 대상 업종으로 포함하도록 변경
 - 오리건주에서 규정하는 도시기업구역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면세 혜택 적용 대상과 동일하되 전자상거래 관련한 신규 투자(이동설비, 창고, 운송시설 등 포함)가 동반될 경우에 허용
 - 해당 지역의 도시기업구역 규정 개정안을 수정함으로써 동부 포틀랜드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ENTERPRISE ZONE **CITY OF PORTLAND**

Oregon employment outside the enterprise zone

Check only those that apply:

☐ Check here if yours or any commonly controlled firm will curtail operations in the state beyond 30 miles of the zone boundary and move them into the zone. Indicate timing, location, number of any job losses, and relationship to the proposed enterprise zone investment:

☐ Check here if you are transferring operations into the zone from state(s) in the state within 90 miles of zone boundary:

My firm's average employment at the state(s) outside the enterprise zone boundary over the past 12 months is _____ jobs.

☐ Check here, if applicable, that your firm commits to increase the combined employment at the site(s) outside but within 30 miles of zone boundary and in the zone to 110% of the existing combined level by April 1 and on average during the first year of exemption.

Proposed investment in qualified property

Anticipated timing—Enter dates or months/years (non-binding)

Action	Site and building and structure		Machinery and equipment	
	Preparation	Construction*	Procurement***	Installation
To commence or begin on				
To be completed on				

* Including new reconstruction, additions to, or modifications of existing buildings or structures.
 ** This is in the calendar year directly before the very first year of exemption, so on page 1, please indicate the year following as the very first year expected for claiming the exemption.
 *** May provide application by up to three months (includes personal property).

Special issues:

☐ Check here for building/structure acquired/leased for which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dditions, or modifications began prior to this application (attach executed lease or closing documents, and don't take up occupancy until this application is approved).

☐ Check here if articulating using Construction in process tax exemption for qualified property that is still being constructed/installed and isn't yet placed in service and is located on site as of January 1. If so, file Application for Construction-in-Process Enterprise Zone Exemption, 150-303-020, by April 1 with the county assessor's office.

Qualifying property: Estimates of cost and details about property are not binding, but in order for property to be exempted, its basic type and any major building/structure needs to be at least represented below.

Type of property	Number of each/item	Estimated value	Check if my firm will be exempt
Real property			
Building or structure to be newly constructed		\$	☐
New addition to or modification of an existing building or structure		\$	☐
Heavy or affixed machinery and equipment		\$	☐
Personal property (item(s) costing \$50,000 or more		\$	☐
\$1,000 or more (i.e. commercial zone or used exclusively for production of tangible goods)		\$	☐
Total estimated value of investment:		\$	

In addition, describe below (or in an attachment) the overall nature and potential extent of your investment, including preliminary building plans and lists of property items, as appropriate and recommended by zone manager or county assessor (may be kept confidential).

Declaration

I declare under penalty of false swearing (ORS 305.900) that I have examined this document and attachments,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y are true, correct, and complete. I understand that my business firm will receive the tax exemption for property in the enterprise zone, only if my firm satisfies statutory requirements (ORS Chapter 285C) and complies with all local, Oregon, and federal laws that are applicable to my business.

Must be signed by an owner, company executive,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business firm

Signature: _____ Date: _____

If not an owner or executive, attach letter attesting to appropriate contractual authority.

Local enterprise zone manager and county assessor must approve this application (with Enterprise Zone Authorization Approval, Form 150-303-020)

150-303-020 Rev. 11-4-1-05

AUGUST 2023

[그림] 포틀랜드 도시기업구역 신규 지정 지역(좌)과 투자계획서 일부(우) (출처: Prosper Portland)

평가

-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 시행의 하나로 평가
 - 포틀랜드시는 도시기업구역 운영 효과로 지난 10년간 약 3,600개의 신규 일자리와 18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성과를 확인
 -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져 앞으로 효과에 관한 면밀한 검토 필요

<https://www.portland.gov/council/documents/resolution/adopted/37629>

<https://www.portland.gov/council/documents/resolution/adopted/37630>

<https://www.portland.gov/policies/environment-built/portland-enterprise-zone/enb-2303-portland-enterprise-zone-and>

<https://katu.com/news/local/city-council-approves-tax-free-enterprise-zone-for-downtown-portland-to-retain-attract-businesses>

<https://www.kgw.com/article/news/local/the-story/downtown-portland-recovery-study/283-4143af3a-ae39-4cb1-8d65-4a60cc175207>

<https://www.wweek.com/news/city/2023/08/28/wheeler-rubio-seek-to-designate-downtown-portland-an-enterprise-zone-to-curb-exodus/>

김 현 철 통신원, khcr4292@gmail.com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방정부의 전자지갑 서비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 산업·경제

사라왁주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자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전자지갑 서비스 ‘사라왁 페이 글로벌’을 운영.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음

정책 시행 배경

- 현금 없는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말레이시아
 - 2020년 말레이시아 인구 대비 전자지갑 사용률은 48%로 약 1,570만 명이 전자지갑을 보유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내에서 사용되는 전자지갑은 53개로 전자지갑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핀테크(Fintech) 산업의 약 19%를 차지
 - 2021년 말레이시아 전자결제 건수는 2020년 대비 89% 증가한 4억 6,800만 건으로 집계
 -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지갑 부양책 ‘국민 전자결제 이니셔티브’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1월 5일 전자지갑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국민 전자결제 이니셔티브(e-Tunai Rakyat Initiative)’에 4억 5,000만 링깃(약 1,278억 원)을 할당
 - 2019년 연간 소득 10만 링깃(약 2,800만 원) 이하의 18세 이상 국민에게 30링깃(약 9,000원)의 디지털 자산을 지원
 - 2023년에는 10억 링깃(약 2,839억 원)을 할당해 연간 소득 10만 링깃 이하의 소득 기준 중위 소득 군(M40)과 하위 소득 군(B40)에게 100링깃(약 28,000원)의 디지털 자산을 지원
- 말레이시아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전자지갑을 출시한 사라왁주 정부
 - 사라왁주 정부는 2017년 사라왁 멀티미디어국(Sarawak Multimedia Authority, SMA)을 설립하고 사라왁 디지털 경제 전략 2018-2022(Sarawak Digital Economy Strategy Book 2018-2022)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
 - 사라왁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2017년 11월 전자지갑 서비스인 사라왁 페이(S Pay)를 출시

- 말레이시아 국립 은행(Bank Negara Malaysia)의 허가를 받은 지방정부 차원 최초의 전자지갑 서비스
- 사라왁주 정부는 사라왁 페이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해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라왁 페이 글로벌(S Pay Global)로 이름과 로고 변경
 - 사라왁 페이(S Pay)는 2021년 3월 글로벌 신용카드사 중 하나인 유니온페이(UnionPay)와 손잡고, 해외에서 사라왁 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며 이름과 로고를 변경
- 2022년 기준 사라왁 페이 글로벌 사용자는 65만 7,800여 명이며, 사라왁주 내 가맹점은 8만 6,150여 점을 확보
 - 사라왁 페이 글로벌의 누적 결제액은 18억 링깃(약 5,053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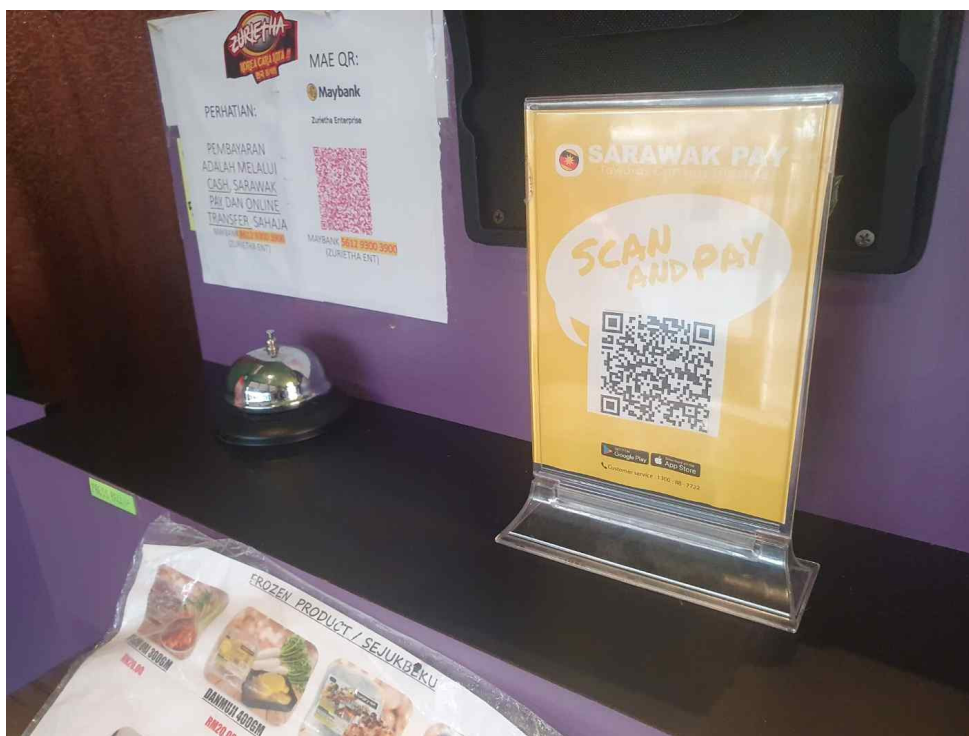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사라왁 페이 글로벌 등록 절차
 - 사라왁 페이 글로벌(S Pay Global)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편리한 결제 방식을 제공
 - 사용자는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해 사라왁 페이 글로벌로 쉽고 빠르게 결제
 - 모든 결제 내역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
 - 상시로 할인 행사를 진행해 할인 코드, 바우처 등의 할인 혜택 제공
 - 사용자는 결제금액의 3~8%를 돌려받으며 환급액은 다음 결제 시 사용 가능
 - 받은 환급액은 보상금 계좌(Reward Accoun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료 기간이 없어 언제든지 사용 가능
 - 사용자는 인터넷 뱅킹과 신용카드로 손쉽게 전자지갑 충전
 - GPS를 기반으로 근방에 할인권 적용되는 매장을 안내해 편의성을 높임
- 생활 전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결부된 슈퍼앱
 - 수도세, 전기세 등 29개의 공과금 관리 및 납부가 가능
 - 사용자는 고지서의 QR코드를 사라왁 페이 글로벌로 스캔하여 납부
 - 보험료 납부, 기부금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자결제 방식으로 이용 가능
 -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음식 배달 등 생활 밀착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앱으로 성장
-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
 - 2022년 1월 사라왁 쇼핑몰 9곳과 주차 요금 결제 방식 제휴

- 사라왁주 내 쇼핑몰 주차장 이용 시 사라왁 페이 글로벌을 통해 주차 요금을 결제하는 서비스 제공: 주차 요금 정산기를 이용할 필요 없이 결제 과정을 간소화해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대
- 2023년 9월 말레이시아 주택 발전 공사(The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HDC)와 협업
 - 사라왁 페이 글로벌을 통해 주택 대출금 상환이나 임대료와 관리비 분할 납부 가능

정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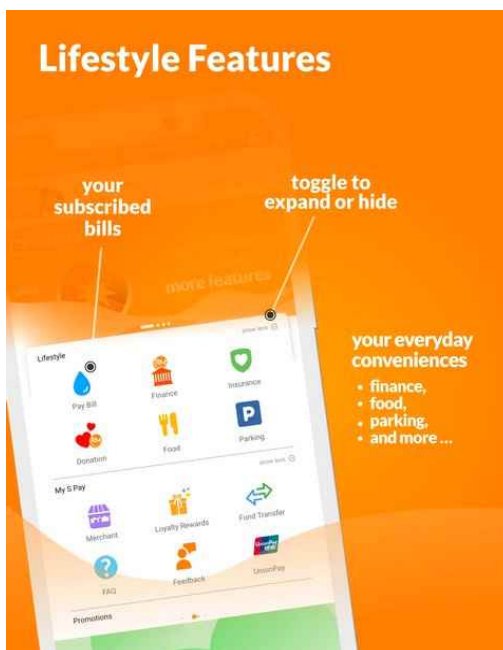
- 사라왁 주민과 가맹점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고
 - 간편한 결제 방식, 결제 내역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환급액 지원 등의 혜택으로 고객에게 편리성 제공
 - 서비스 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며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
 - 다양한 할인 행사를 통해 가맹점 마케팅을 지원해 가맹점에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
 - 또한 가맹점들이 잔돈을 준비하는 수고로움을 덜어 주고 카드 단말기 설치 등의 비용을 절감해 주는 효과
 - 관광객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결제 가능
 - 외국인의 금융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지역경제와 디지털 경제 발전에 이바지
 - 사라왁주 내 전자결제 시장의 성장으로 사라왁 페이 글로벌의 2022년 수익은 28억 링깃(한화 약 7,955억 원)을 기록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2022년 사라왁 페이 글로벌 거래 건수는 6,670만 건으로 디지털 경제 및 모바일 중심의 경제·소비활동 확산
 -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
 - 사라왁 페이 글로벌로 결제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활성화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만족도 및 구매심리 증대
 -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소비 촉진



[사진 1] 사라왁 페이 글로벌 QR 코드 (출처: 필자 직접 촬영)



[사진 2] 지역행사와 연계한 사라왁 페이 글로벌
(출처: 사라왁 페이 글로벌 페이스북)



[사진 3] 사라왁 페이 글로벌 앱
(출처: 사라왁 페이 홈페이지)

https://spayglobal.my/modules/web/pages.php?mod=faq&sub=faq_user&cat=faq_u_rewards
<https://www.newsarawaktribune.com.my/corporation-accepts-payments-via-spay-global-app/>
https://spayglobal.my/modules/web/pages.php?mod=news&sub=news_view&menu_id=0&sub_id=19&nid=39&m=9&y=2023
<https://www.astroawani.com/berita-bisnes/bank-negara-approves-sarawak-pay-abang-johari-157961>
<https://www.theborneopost.com/2017/12/13/cm-launches-sarawak-multimedia-authority/>
<https://www.theborneopost.com/2017/09/09/sarawak-to-emulate-estonia-as-model-for-digital-economy/>
<https://sarawaksmart.com/v1/?p=698>
<https://www.malaysiakini.com/news/402071>
<https://www.nst.com.my/news/government-public-policy/2020/01/556304/e-tunai-rakyat-application-period-starts-jan-15-free>
<https://www.nst.com.my/opinion/columnists/2021/04/683345/e-wallet-use-malaysia-growing>
<https://ejbm.sites.apsit.edu.my/files/2022/07/Paper-4-The-Adoption-of-E-Wallet-by-Generation-Z-in-Kuala-Lumpur-Malaysia.pdf>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22/10/21/the-adoption-evolution-of-e-wallets/>
https://jbalb.sarawak.gov.my/web/subpage/webpage_view/132
<https://www.hmetro.com.my/utama/2023/07/992237/kredit-e-tunai-rm100-untuk-dewasa-b40-m40>
Tang, M. B., Dieo, B. A., Suhaimi, M. K. A. M., & Andam, J. L. A. (2022). The emergence of e-wallet in Sarawak: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Sarawak Pay.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ety*, 23(3), 1423-1442.
Mustafa, M. A., Singh, J. S. K., & Ahmad, N. B. (2022). The adoption of e-wallet by generation Z in Kuala Lumpur, Malaysia.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7(2), 51-67.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포스트 코로나19에 맞추어 ‘동물방역조례’ 개정하여 시행

중국 충칭시 / 환경·안전

지난 9월 27일 충칭시 인민대표대회는 2013년부터 실행해 왔던 ‘충칭시동물방역조례’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수정안은 지난 10년 동안 반려동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바뀐 현실을 반영하여, 동물 방역 책임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면서 7장 52조로 구성. 중국도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개인과 가정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충칭시동물방역조례’ 수정안

- 지난 9월 27일 충칭시 인민대표대회(이하 ‘인대’, 지방의회에 해당) 상무위원회는 ‘충칭시동물방역조례(動物防疫條例)’의 수정안 초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충칭시 인대는 지난 2013년 7월에 통과되어 그해 10월부터 실행해 왔던 기존의 ‘충칭시동물방역조례’가 최근 반려동물 급증 현상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바뀐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 아래 올해 5월에 수정안을 마련
 - 충칭시 인대는 7월부터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수정안을 통과시킴
 - 기존의 ‘충칭시동물방역조례’는 7장 52조였는데, 수정안은 7장 46조로 구성
 - 13조가 새롭게 제정되었고, 32조는 수정되었으며, 12조는 폐지됨. 충칭시 인대는 심의 과정에서 각계로부터 113건의 의견을 받아 69건을 수정안에 반영함
- ‘충칭시동물방역조례’ 수정안은 동물 방역 책임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개선
 - 이를 위해 각급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동물 전염병 예방기관의 책임을 명시했으며, 동물의 사육, 도축, 운송과 동물제품의 생산, 운영 및 가공 등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이 지켜야 할 동물 전염병의 의미와 책임을 명확히 함
 - 각급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는 동물 전염병의 식별, 보고, 발표와 비상 관리, 동물 및 동물제품의 무해화한 처리, 주인 없이 죽은 가축과 가금류 처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원활하게 관리·감독하도록 검역 신고와 검역 시행을 위한 특정 규정 등을 추가함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험으로 단순한 계도와 홍보만으로는 ‘충청시동물방역조례’ 수정안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중국행정처벌법(中國行政處罰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벌금 조항을 신설
 - 전염병으로 규정된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격리나 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동물을 사육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방정부가 전염병으로 규정한 질병에 대해 예방 접종을 시행하지 않으면 충청시와 관할 구, 현(縣) 지방정부의 농업농촌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00위안 이상(약 18만 5,000원)에서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충청시 관련기관에서 사육용 또는 낙농용 이외에 반려용으로 수입이 허가된 동물과 다른 성사에서 충청시로 운송된 반려동물이 관할 내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규정에 따라 격리 관찰되지 않으면 충청시와 관할 구, 현의 농업농촌주관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약 37만원) 이상에서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1인 가정 증가,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반려동물

-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중진국이지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선진국형 사회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개인과 가정이 해마다 크게 증가
 - 2012년 중국질병통제센터가 전국적으로 조사했던 반려견 숫자는 1억 2,000마리가 넘었는데, 중국 언론은 현재 그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이에 따라 해마다 개에게 어린이, 노인 등이 물려 죽거나 다치는 각종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충청시동물방역조례’ 수정안에는 반려동물 중 인간에 대한 공격 위험성이 큰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이 지켜야 할 조항도 마련함
 -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은 정기적으로 반려견에게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명찰과 목줄을 착용토록 하였으며, 시장과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 시설에는 출입을 금지함



[그림] 사람의 팔을 무는 개의 공격 위험성을 경고한 사진 (출처: 화령망)

https://www.cqcb.com/yukuaibao/2023-10-08/5390588_pc.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72564324264025481>

<https://www.cqrd.gov.cn/article?id=465723646947397>

<https://flk.npc.gov.cn/detail2.html?NDAyOGFiY2M2MTI3Nzc5MzAxNjEyN2ZmYWlxNjQwZTU>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세대 간 공동거주 혜택 정책

프랑스 파리지 / 도시계획·주택

프랑스 파리시는 파리시의 임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노인가구의 비어 있는 방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 간 공동거주 정책을 펼치고 있음. 자식들이 독립하여 남는 방이 있는 노인가구가 젊은이에게 손쉽게 방을 임대하도록 하여 임대 공급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노인가구에게는 경제적 혜택(세제 혜택)과 젊은이와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가구의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

사업 개요

- 파리시는 옛날 건물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임대 수요에 맞춰 새로운 건물을 지어 임대 공급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30세 이하 젊은 세대가 임대료가 높은 파리 시내에서 아파트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음
- 파리시는 학업 또는 취업으로 파리 거주를 희망하는 30세 이하 젊은이들이 노인가구의 남는 방을 임차하는 세대 간 공동거주를 권장하고 있음
- 임차를 희망하는 젊은이와 임대를 희망하는 노인가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파리시에서 관리함으로써 임대 공급 문제와 고령화 인구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파리시에서 아파트를 임대할 때는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까다로운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젊은 세대(특히 가족의 재정 보증이 어렵거나 외국인 학생 등)의 아파트 임대가 매우 어려움
-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 중에는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있어 줘야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작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2018년 발효된 엘랑(Elan)법 개정으로 빈방이 있는 노인가구라면(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공동거주 방식으로 빈방을 임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에 반대할 수 없음. 단 임차인이 임대할 경우 재임대 사실을 고지해야 함

○ 임차인 및 임대인의 조건

- 임차인은 30세 이하로 학생, 인턴 혹은 직장인일 것
- 임대인은 60세 이상 노인가구로 기본적으로 혼자 생활이 가능해야 함
- 임대할 방은 최소 9㎡이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구가 갖춰져 있어야 함
- 양측이 원하는 대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되 최대 1년으로 임대하고 1년 후 갱신 가능

○ 임대 방식

- 사회연대 거주
 - 집세 무료. 대신에 일정 정도 노인 동거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
 - 일주일 중 4~5일은 저녁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노인 거주자의 일상에 필요한 작은 도움을 제공(장 보는 것 돕기, 음식 데우기, 강아지 산책시키기 등)
 - 희망하면 방학에도 지낼 수 있음
- 일반 공동거주
 - 특별한 의무사항 없이 방세를 부담하는 방식(250~510유로 수준)으로 일반 아파트 임대에 비해 저렴함
 - 기본적으로 공동거주 생활에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작은 활동을 권유(취미 생활 공유 등)

○ 세제 및 보조금 혜택

- 임차인은 방세에 대한 정부주택보조금(API)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노인 임대인이 세대 간 공동거주 방식으로 받은 방세에는 세금 부과하지 않음

○ 세대 간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 파리시에서 관리하는 세대 간 공동거주를 위한 비영리기관이나 협회에 등록(등록비 있음)해야 하며 기관이나 협회에서 직접 관리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은 등록 시에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표시함
-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칭하여 대면 인터뷰 후에 확정
- 보증인이 없이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임차인 및 임대인의 부담을 줄임
-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외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임대 중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영리기관이나 협회가 중재자로서 해결책을 제안
- 임대 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한 달 전 고지를 통해 계약 해지 가능

시사점

- 대규모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음
-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시내에 거주할 기회 제공
- 퇴직 이후 수입이 많지 않은 노인가구에 일정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도움
- 노인 세대가 사회 변화에서 도태되거나 격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세대와의 공동 거주 생활이 세대 간의 소통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학업이나 취업으로 자녀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해야 하는 경우(최소 18세), 부모 입장에서는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음
- 외국인 학생의 경우 공동거주로 프랑스어를 연습하고 프랑스 문화를 배울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음

<https://camarage.fr/>

<https://www.ecologie.gouv.fr/loi-portant-evolution-du-logement-lamenagement-et-du-numerique-elan>

<https://ensemble2generations.fr/logement-etudiant/>

<https://www.leparisolidaire.fr/>

<https://www.paris.fr/pages/la-cohabitation-intergenerationnelle-7493>

정 연 주 통신원, yonjoo1004@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62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10월 30일

—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